

지원 안내서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도움



지원 안내서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도움

소개.....	ii
1.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실 것어요	1
2.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떨쳐버리고	8
3.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	14
4. 내게 가까이 오라.....	20
5. 네 자신을 살피라.....	27
6. 네 친구들은 네 곁에 서 있나니.....	33
7. 범사에 감사하라	39
8. 굳건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46
9. 우리는 부정직을 버렸고	54
10.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라.....	61
11. 이 모든 일을 인내로 참으십시오	67
12.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73
부록.....	79

소개



이 안내서는 강박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의 목적은 배우자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 평안과 치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복음 원리와 교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는 모든 사람을 치유시켜 줄 단계별 처방 같은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이 복음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원리들을 순차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안내서에 있는 모든 원리를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복음 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며, 더 큰 평안과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찾음

사랑하는 사람이 강박 행동의 올가미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낙담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결과가 엄습할까 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단지 걱정이 되고 도와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마태복음 19:26) 있으십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둠의 영향력이 점점 자신에게 파고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걱정, 근심, 또는 의심으로 짓눌려 있다고 느끼실 수

원리 1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요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야곱서 3:1)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

유해한 행동들(예를 들면, 외설물을 보는 것)과 해로운 물질의 사용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다음은 덮에 빠진 사람들을 둔 많은 배우자와 가족들 혹은 친구들이 경험하는 몇 가지 감정들입니다.

-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해를 미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 불면증, 스트레스 및 불안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
-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유에 대한 혼란

원리 2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떨쳐버리고



“깨어나라 ... 의의 갑주를 입으라.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떨쳐버리고 어둠 속에서 나아오며, 티끌에서 일어나라.”(니파이후서 1:23)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우리 잘못이 아님을 깨달음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할 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는지 의아하게 여기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 일에 어느 정도는 우리 책임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애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는지 의아해 하며 이렇게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유형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죄책감과 절망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선택의지의 원리이며, 이는 곧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능력과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연구하고 이해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 우리

주

신앙개조 1:2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2~19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도덕적 수양”,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05~108쪽

로버트 디 헤일즈, “선택의지: 구원의 계획의 본질”,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4~27쪽

동영상: “... 할 수 있는 자유”

개인 학습 및 적용

다음은 이러한 원리들의 학습과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느낌, 통찰, 그리고 배운 바를 실행에 옮길 실천 계획을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필요 사항과 상황이 바뀔에 따라 여러분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동영상 “... 할 수 있는 자유”를 시청하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일지에 적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의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구주로부터 평안과 도움을 찾게 해 줍니까?
- 개요에 있는 성구를 공부하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구들이 선택의지에 대해 가르치는 점을 일지에 적습니다. 어떤 성구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운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다음 인용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고대와 마찬가지로, 악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행함으로써 행함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스스로 행함: 선택의지의 은사와 축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8쪽) (니파이후서 2:14 참조)

원리 3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 ...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엘마서 7:11~12)

어떠한 축복도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함

우리는 가족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이 우리의 소망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매우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나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겨우 매달려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약속이 깨지고 꿈이 위협받을 때 느끼는 아픔을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는 경우라도 그들의 선택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외설물이나 다른 강박 행동, 혹은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로 인해 오랜 시간

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드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거나 무거운 짐을 견디도록 그분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많은 분이 주님의 치유의 권능에 대해 자신들의 마음을 열지 않음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그 짐을 구주께 맡기십시오.”(“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6, 88쪽)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니파이후서 31:19) 주님께 우리 짐을 맡길 때, 큰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시각에 뛰어난”(빌립보서 4:7) 그분의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려 노력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태복음 17:20) 구주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미약한 신앙은 성장하고 커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진 신앙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여러분이 보이는 고결하고 성실한 태도입니다.”(“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 여러분의 짐을 구주께 맡기고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분은 어떤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함

고통을 멈추고 싶은 마음에 변화가 당장 일어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계속 바라기는 하지만, 어떤 변화는 평생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극복되지는 않으며 필요한 관계도 이생에서 모두 다 바로잡아지지 않습니다. 구원 사업은 죽음의 장막을 넘어서도 계속되므로, 이생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지 못한다고 해서 지

원리 4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88:63)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의지함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와 지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하나님께 구하라.”(야고보서 1:5)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며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느낌은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옵니다. 또는 구하지 않았더라도 꼭 필요한 순간에 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계시 하십니다.”(“영적인 인도를 얻음”,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쪽)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자아를 발전시킵니다. … 우리는 육체적인 신체를 훈련시키듯 영적인 자아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리 회장

복음 공부

아래의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그 자료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9:9~12; 힐라맨서 5:30; 교리와 성약 6:14~16, 23; 8:2~3; 11:12~14 (영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14: 26~27 (성신은 우리가 일들을 기억하고 평안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니파이전서 15:8~11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 주신다.)

니파이후서 32:3~5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

앨마서 17:2~3 (경전과 기도, 금식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계시의 영",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87~90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성찬, 성전, 희생 봉사",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34~36쪽

리처드 지 스코트, "삶에 필요한 계시와 영감을 받는 방법",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45~47쪽

리처드 지 스코트, "성전 예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과 권능의 근원이 됨",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43~45쪽

동영상: "성신을 느낌"

동영상: "빛의 유형: 계시의 영"

동영상: "Voice of the Spirit(영의 음성)"

개인 학습 및 적용

다음은 이러한 원리들의 학습과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느낌, 통찰, 그리고 배운 바를 실행에 옮길 실천 계획을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필요 사항과 상황이 바뀔 때 따라 여러분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notes.

원리 5

네 자신을 살피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디모테전서 4:16)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들을 치유하는 주체도 우리가 아님을 받아들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닳아 걸려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 일을 막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려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치를 따지거나, 협상하거나, 벌을 주거나, 교묘히 조종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고 든다면 긴장감과 두려움, 적개심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선택의지를 무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하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 순종으로는 아무런 축복도 불러오지 못합니다.”(“곤경에 처한 사랑하는 사람을 도움”,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65쪽)

자기 자신을 보살핌

치유에서의 중요한 측면 하나는 시간을 내어 삶의 균형을 찾고 자신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택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로 지치거나 우리 자신의 안녕을 소홀히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절제하며”(앨마서 7:23)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리지(모사이야서 4:27)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닐 에프 매리엇 자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왕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일으켜 세워야 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우리가 어찌할꼬?”,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0쪽)

- 여러분 자신을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해 줍니까?

강박 행동을 이해함

강박 행동에 대해 배운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대답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혼자라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 선지자들과 여타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중독 회복 프로그램(addictionrecovery.lds.org), 외설물 극복 웹사이트(overcomingpornography.org), LDS.org에 있는 기사, BYU 캠퍼스 교육 주간 강연, 기타 많은 자료를 비롯하여 복음과 관련된 유용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박 행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알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도울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원리 6

네 친구들은 네 곁에 서 있나니



“네 친구들은 네 곁에 서 있나니, 그들은 따뜻한 마음과 정다운 손으로 또다시 너를 환호하며 맞이하리라.”(교리와 성약 121:9)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함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직면할 때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헤쳐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간증하여 성신의 동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참된 친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2쪽)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거북하고 상처받기 쉬운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며 다른 사람이 그 문제에 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판단을 내릴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도움을 구하는 일은 당연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원리 7

범사에 감사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 나의 친구들에게 이르노니, 두려워 말라.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교리와 성약 98:1)

좌절과 두려움, 분노를 극복함

인생이 늘 우리가 소망하거나 기대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좌절과 두려움, 분노로 짓눌리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사탄은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도록 이끄는 기회로 삼습니다. 부정적인 정서에 몰입할수록 그런 감정은 더 강해져, 급기야는 우리 생각을 지배하며, 영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 우리 능력을 감소시키기 시작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7) 잠언의 이 말씀은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모두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받은 축복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 어떻게 하면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인식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많은 영적 은사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가지 은사가 주어짐이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지나니, 이는 모두가 그로써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6:11~12) 우리 각자가 축복으로 받은 은사를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발전시키려 노력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만족과 성장,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행복, 여러분의 유산”,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19쪽)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기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기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은사와 재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확인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선한 점을 찾음

우리 자신의 은사를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에 더하여 다른 사람, 특히 우리 가족이 가진 신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초점을 주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대에 대한 생각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기가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넘어서서 그들이 정말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닌 선한 성품과 행동에 감사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르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심지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서도 신성한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본 선함을 인식

주

리처드 지 스코트,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0~102쪽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70, 75~77쪽

동영상: "날마다 추수 감사절"

동영상: "감사의 영으로"

개인 학습 및 적용

다음은 이러한 원리들의 학습과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느낌, 통찰, 그리고 배운 바를 실행에 옮길 실천 계획을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필요 사항과 상황이 바뀔 때 따라 여러분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말씀, "오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를 공부하고 깊이 생각해 보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날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손길이 우리나라 자녀들, 또는 우리 가족에게 임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숙고한 후 자기 생각을 기록해 보십시오.
-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는 시련이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담과 이브(복음 그림책[2009], 5번) 그림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며 모세서 5:10~12를 읽습니다. 역경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 동영상 "날마다 추수 감사절"과 "감사의 영으로"를 시청하고 감사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은혜롭고 영광스러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애롭고 고귀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일입니다."("감사라는 성스러운 선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90쪽) 어떻게 더 깊은 감사를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깊은 감사를 보일 수 있습니까?

원리 8

굳건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즉 이에 이른 자마다,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신앙과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히라만서 15:8)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함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문제와 우리 자신의 안녕과 안전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파괴적인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싶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지키는 데 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특정 행동이나 개인에 대한 테두리나 한계를 정하여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면 자신이 희생자 같다는 느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존 케이 카맥, “우리 자녀들이 실족할 때”, *리아호나*, 1999년 3월호, 29~37쪽

러셀 엠 넬슨,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9~71쪽

델린 에이치 옥스, “이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0~73쪽

델린 에이치 옥스, “사랑과 율법”,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26~29쪽 참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계속 인내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6~59쪽

“가족의 책임”, *복음 원리*(2011), 212~217쪽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처함”, *결혼 및 가족 관계: 교사 교재*(2000), 18~22쪽

개인 학습 및 적용

다음은 이러한 원리들의 학습과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느낌, 통찰, 그리고 배운 바를 실행에 옮길 실천 계획을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필요 사항과 상황이 바뀔 때 따라 여러분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말씀 “사랑과 율법”과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말씀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를 공부하고 깊이 생각해 보며, 한계를 정하고 사랑을 보이는 것과 관련된 원리를 찾아봅니다. 이미 정했거나 정하기로 계획한 한계(경계)들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계들을 이러한 복음 원리의 맥락에서 평가해 봅니다. 일지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록합니다.
-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교회 지도자 같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어떤 한계나 치러야 할 대가가 필요하며 타당한지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이와 더불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합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원리 9

우리는 부정직을 버렸고



“[우리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린도후서 4:2)

신뢰를 키움

그릇된 선택은 비밀 속에서 자라나며 속임은 그 활력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과 속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인식할 때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을 축소할 때,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가게에 간다고 하면, 혹시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려는 생각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 때문에 우리의 소통과 관계에 장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걱정하는 가운데,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원리 10

쳐진 손을 일으켜 세우라



“그런즉 충실하라. 내가 너를 임명한 그 직분을 수행하라. 약한 자를 도우라. 쳐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

의로움으로 지지함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잘못된 선택을 극복하려 기울이는 그들의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의로움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런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입은 피해를 우리가 손수 복구하고 그들을 대신해 보상을 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도움이 매우 유익하고 심지어 인생을 구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을 지지하거나 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구해 주는’ 덫에 빠질 경우, 우리는 그들의 회복에 방해가 되거나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도움을 구하는 일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으시다는]”(교리와 성약 1:31)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낳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하겠다고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누가복음 15:17 참조) 선지자 엘마는 그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네 범죄를 되새기며, 네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엘마서 39:7) 우리는 모두 자신이 한 말

복음 공부

아래의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그 자료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사이야서 18:8~10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겠다는 성약을 맺었다.)

모사이야서 18:29; 제3니파이 26:19 (니파이 백성들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필요와 부족에 따라 서로를 돌보았다.)

제3니파이 18:23, 30~32 (우리가 계속하여 서로를 돌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데이비드 엘 벡, "성역을 베푸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55~57쪽

"가족의 책임", *복음 원리*(2011), 212~217쪽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처함", *결혼 및 가족 관계: 교사 교재*(2000), 18~22쪽

"회복하도록 지원을 찾고 베풀", OvercomingPornography.org

동영상: "Ministering to Others(다른 사람을 보살핌)"

동영상: "Watching Over the One(한 사람을 돌보기)"

동영상: "The Errand of Angels(천사들의 심부름)"

개인 학습 및 적용

다음은 이러한 원리들의 학습과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느낌, 통찰, 그리고 배운 바를 실행에 옮길 실천 계획을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이런 활동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필요 사항과 상황이 바뀔 때 따라 여러분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notes.

원리 11

이 모든 일을 인내로 참으십시오



“이는 내가 결박되어 있던 일을 내가 앎이요 … 네가 또 이 모든 일을 인내로 참았음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 연고니, 이제 너는 주께서 너를 건지신 줄을 아느니라.”(엘마서 38:4)

회복이 하나의 과정임을 인식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빠르게 혹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단발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점진적으로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이 단계는 시간과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너희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21쪽) 이와 비슷하게, 모든 변화에는 에너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영적, 및 신체적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는 회복의 과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주

“회개는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재 계속하고 있고, 깊이 뿌리 박힌 부적절한 행동 방식들을 중단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은 건전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개와 회복은 모두 시간이 걸린다. 때때로 [사람들은] 최선의 의도가 있더라도 더 큰 자기 수양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혹에 굴복할 경우가 있다. ...

사람들은 침례와 확인을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그 은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들의 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침례와 확인은 이러한 행동에 따르는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충동을 완전히 없애지 못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일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해도, 완전히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정서적인 치유가 필요할 수도 있다.”(187~188쪽)

- 이와 같은 회개와 회복에 대한 진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지지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재발에 적절하게 대처함

재발이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선택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될 때를 뜻합니다. 재발은 매우 보편적인 일이며, 그 범위는 이전의 행동을 한 번 더 하는 정도부터 다시 완전히 빠져버리는 정도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재발이 그만큼 보편적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복의 일부라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발은 회복 과정의 일부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하는 변명이나 합리화를 용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재발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하며 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추가로 경계나 한계를 정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고도 솔직한 관점으로 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직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잘못을 저지룰 때, 우리는 절망감, 의심, 낮은 자아 존중감, 분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강렬하고 때로는 헤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고통은 여전히 생생하고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그 절망과 고통은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

원리 12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평안을 찾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비탄에 잠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왜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가?” “그분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나는 누구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가 받은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그분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2편 참조)

참여자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여러분이 몹시 해로운 습관을 극복하도록 도울 때,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지원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참여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한다면, 그들은 여러분과 교류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 구주의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회복의 12단계를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은 곳에서 유익한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은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근원입니다. 회복과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몬경에서 선지자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앨마서 7:12)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다면, 여러분은 도움을 받고 양육되는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도움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요한복음 14:6) 성신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가도록 위안과 평안,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2. **가족 구성원.** 가족은 사랑을 보이고 용인하며 또 자신들의 삶에서 12단계와 복음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도움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중독 회복 프로그램: 중독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안내서와 지원 안내서: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도움**에서 가르치는 복음 원리를 배우고 적용할 때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 참여자는 직계 가족 또는 개인 사정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는 개인 사정을 나누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위안을 줄 만큼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에 있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사람이 위안을 준다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3. **친구.** 여러분이 문제를 털어놓든 아니든, 여러분이 힘들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사랑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여러분이 변화가 필요할 때를 알게 도와주고 또 회복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때 충분히 힘이 될 만큼 친구들이 도와준다면, 여러분의 가치와 진가를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

4.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은 회복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의 권능을 절대로 잊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이 신권 지도자들(감독, 스테이크 회장 및 선교부 회장)은 [치유와] 회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2004], 187~188쪽) 하지만 스테이크 또는 와드의 신권 지도자들 이외에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헌신적인 정원회 지도자, 상호부조회 지도자, 성역자들도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가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행하여,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미덕과 명예, 단결, 사랑, 그리고 시온의 대업을 믿는 신앙과 성실함을 훈계하는 … 교사의 의무보다 더 거룩하고 필요한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15, 140) 또한, 엘 톰 페리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가족] 단위를 보살피고 강화하기 위해 일선에 선 자들입니다.”(“가정 복음 교육—신성한 부름”,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08쪽)
5. **회복 모임.** 회복 모임은 단체로 모인 가운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선교사, 자원봉사자, 회복을 경험한 진행자들과 회복의 원리를 실천하는 다른 사람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의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지 듣습니다. 개인의 회복 경험담을 나누면 여러분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또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전문 상담자.** 자기 파멸적인 선택을 다뤄나가는 사람들에게 상담자가 통찰과 관점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할 때, 교회 회원들은 복음 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7. **도우미.** 도우미는 여러분이 평안을 찾으려 노력할 때 여러분 곁에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12단계 회복을 이미 경험한 도우미는 부정과 여러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도우미는 강박 행동이 있는 사람을 가두는 부정직을 인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당면하는 다른 어려움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도우미는 회복 중인 사람들이 “삶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책임을 과장하거나 최소화시키지 않게”(회복 프로그램: 중독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안내서, 29쪽) 도와줍니다. 도우미가 강박 행동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

주

도우미를 선택함

다른 12단계 회복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교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은 특정한 도우미에게 지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시기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회복 모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찾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우미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우미가 될만한 사람을 일단 찾더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창피하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과 수용의 크기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연결될수록,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그 사랑에 합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도우미를 선택할 때, *중독 회복 프로그램: 중독 및 치유를 위한 안내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나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할 사람과는 … 민감한 이야기는 나누지 마십시오. [도우미]는 말과 행동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30쪽) 교회에서 정말 활동적이고 이런 행동들을 극복하기 위해 12단계 각각에 있는 원리들을 이미 습득한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인 도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때, 자신의 약점을 이미 찾아보고, 고백하고 다양한 자원, 특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그 약점을 극복하려 노력했던 사람들을 꼭 찾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회복에 대한 개인적인 결심을 나타내줍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자신의 약점을 이미 극복한 도우미는 다른 사람이 거치고 있는 정서적 변화 과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그램을 이미 마쳤거나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영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려[는] … 모두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 [그들은]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장 잘 나누게 될 것입니다.”(*중독 회복 프로그램: 중독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안내서*, 71쪽) 회복했던 사람들은 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인식하고, 모범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이 회복의 도구를 이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별이 같은 지지자를 선택해야 합니다.(서로 친인척인 경우는 제외) 회복 과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도우미와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6. **인내한다.** 개인의 회복 과정은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앞으로 나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전하지 못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으며 회복의 원리와 실행 방법을 적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원리들을 공부하고 적용할 준비가 되기에 앞서 우리 대다수가 ‘밑바닥까지 내려’ 가야만 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중독 회복 프로그램: 중독 및 치유를 위한 안내서, 71쪽)
7. **부드럽지만 확고한 격려를 전한다.** 효과적인 도움은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교리와 성약 121:41~42) 만듭니다.
8.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우선한다.**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상기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거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돌이켜 인도와 힘을 받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중독 회복 프로그램: 중독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안내서, 71쪽) 여러분의 역할은 신앙과 희망의 경험을 나눠서 여러분이 돕는 사람들이 12단계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게 돕는 것입니다.
9.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도움을 줄 때마다, 12단계 프로그램에서 어떤 원리와 실행 방안이 현재 참석하는 사람의 필요 사항에 가장 유익한지 알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합니다. “언제나 성신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이 배운 영적인 원리들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중독 회복 프로그램: 중독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안내서, 71쪽)
10. **진리에 대해 간증한다.** 여러분이 약점을 극복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느낌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 들려 주어 여러분과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십시오.”(중독 회복 프로그램: 중독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안내서, 71쪽) 여러분은 구주와 그분의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버전: 3/14

PD10051047 320

Printed in Korea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